



정보통신 회선 사용제도에 관한 설명회 개최

협회는 정부의 제4차 회선사용제도 개선조치와 이에 따른 한국데이터 통신의 다중화장치 사용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협회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체신부 관계공무원과 데이콤의 담당부서장이 참석해 업계에서의 문을 가지고 있는 개선조치 내용과 다중화 장치 사용기준을 설명했다.

업계의 참석자들은 다중화장치 사용화대와 관련해 64kbps급으로 기준을 정한 이유 및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다시 받게 하는 이유, 회선의 단순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 교환기와 다중화 장치의 구분, 전용교환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 다중화장치에 집중화

기기(concentrator)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사용 특례인정을 받은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타인사용 특례신청시 시스템 구성도를 별도로 재신고할 필요성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설명회에 앞서 협회는 지난달 7일 협회사무국에서 4차 회선사용제도 개선조치내용 및 전파관리법 개정안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EDI국제총회 참가 및 해외 VAN 시찰

우리 협회에서는 「제1회 EDI 국제총회 참관 및 해외 VAN 시찰단」을 구성, 시찰에 나선다.

8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에 걸쳐 캐나다, 미국을 경유 하며 EDI 총회참가 및 AT&T, EDI, INC를 방문한다. 또한 귀국길에 일본을 들러 KDD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시찰에는 협회 회원사인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거의 참여해 EDI에 대한 관심도의 중요성을 반영해주고 있다.

협회사무국은 이달 4일 시찰단 참가자 모임을 가진 EDI 일 반개요및 시찰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전자공업발전 유공자 포상추천

우리 협회는 한국전자공업진흥회가 우리나라 전자공업 3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하는 포상행사에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이달초에 추천한다.